기획취재…학회를 점검한다〈서울〉

'올바른 세계관의 정립과 이를 통한 집단적인 학습, 실천을 지향하는 것이 학회활동의 목표'라고 할때, 학회에 대한 원론적인 정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회가 안고있는 문제점들의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양캠퍼스 학회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두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자율적인 학습 폭넓은 현실인식

형식에 비해 참여도·내용성 부족
다양화 통해 학회의 대중화 모색

'학회'가 고등학교때까지 주입식교육을 받아온 신입생에게 다소 생소한 느낌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과수업뿐 아니라 전공과목 또는 기타의 학문을 학회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신입생은 학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더욱이 학문활동이나 생활하는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의식에 대한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경험이 가능해진다고 볼때 학회는 그러한 토론의 공간으로서 형식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학회가 올바른 세계관의 정립과 이를 통한 집단적인 학습, 실천을 지향'하는 것이 목표"라고 신준선(정외·3) 정외과 학회장은 말하고 있다.

학회에 대한 원론적인 정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회가 안고있는 문제점들의 점검과 바람직한 대안의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캠퍼스에 있는 30여개의 학과중 각과별로 평균 3,4개의 학회가 있다.

이들 학회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학회의 실정에 맞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문리대 사학과의 경우 철학사, 동양사, 고대한국사, 근현대사, 탁본부 등의 파트를 두고 있으며 기초학습을 거친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세미나를 진행중이다.

반면 학회가 생긴지 1년미만인 법대 행정학과는 분야는 세분화했지만 사회과학 중심으로 진행되어 과특성과의 접맥이 안되고 있다. 유승환(행정·2) 사회행정학회장은 "사회과학을 통한 행정학은 고찰하려는 의도가 사회행정학을 다룬 책이 많지 않아 커리큘럼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리대 인문계열에 속하는 학생들의 경우 전공학문의 성격과 학회모임의 연구분야가 유사해 신입생들의 참여와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회가 가장 대중화된 학과중 하나인 국문과는 다양한 학회분야가 체계적인 학습과 과학적인 현실인식에 기초한 실천활동도 하고있어 모범적인 학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정경대의 몇개학과는 학회가 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학회와 과공부간의 이질성을 보이기도 한다.

금부종(경제·2)군은 "전공과목이 다소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와 학회의 커리큘럼에 따른 인식상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해 학회를 탈퇴하거나 학과공부를 포기하고 학회에만 매몰되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학생이 학회활동의 필요성과 사회과학적인 학습을 인정하고 있지만 학회의 성격에 적응할 수 없어 학회에 대해 거리를 두게되는 예도 있다.

반면 의약계열, 음대, 체대등 학과의 특성상 전공학습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학회활동이 미흡한 상태이며, 관심있는 사람들은 학술동아리, 문화패등으로 지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다.

지난 87년이후 학술동아리가 발전적으로 해체되면서 내용성과 대중성을 확보한 학회는 조건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회구성원의 많은 부분인 신입생에게서 제기되는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는 비민주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선배에 의해서 제시된 커리큘럼이나 형식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 학회활동공간의 큰 부분인 '지도하는 선배'의 능력의 문제이다. 대부분 바로 윗학번이거나 경험,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이 개인의 관점을 신입생에게 주입함으로써, 지식이나 사상의 전달과정이 강요형식을 띄거나 그 내용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

세째, 학생회와 학회의 관계설정의 문제이다. 88년까지 학회가 학생회와 혼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아직도 학회와 학생회의 구분이 모호한 실정이다. 학회가 학생회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생회의 하부체계와는 달리 나름의 독자성이 있어야 한다. 학회활동을 통한 학생회사업에의 적용이나 학생회참여를 통한 학생회의 강화는 가능하나 학생회의 동원인원으로서 학회구성원이 이용돼어서는 안된다.

네째, 고학년 학회모임의 문제이다. 본교의 경우, 타대에 비해 일찍 2학년부터 학회의 고유활동인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고학번이 될수록 학문영역이나 활동공간이 넓어지면서 학습의 포기나 나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위와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건전한 학회와 학문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회도 학생회처럼 민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되어야 한다. 건전한 비판과 상호교류를 위해서는 '학회연합' 또는 2, 3, 4학년의 학년학회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 학생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학생회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학회파트별 모임의 성격과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만환 記者〉

'문리사랑운동'을 전개중인
문리대학생회기획부장 차승윤군과 함께

주변생활속에서의 사랑운동 전개
소속감, 자긍심 고취에 큰 몫

"문리사랑운동은 기존의 문리대학생회가 정치투쟁 일변도의 사업진행이라는 일반학생들의 인식에서 벗어나 주변과 생활속에서 문리과대학을, 문리대 학생회를 찾자는 생각에서 기획되었습니다"라고 문리대학생회 기획부장인 차승윤(사학·3)군은 문리사랑운동을 전개하게된 계기를 밝힌다.

'문리사랑운동'은 지난 2월 문리대학생회 집행부회의서 제안되어 3월 첫째주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간 문리대학생회는 '문리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는 문리대를 사랑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리본달기 운동, 문리사랑 뺏지 배포, 문리대를 깨끗이 사용하자는 내용이 인쇄된 종이로 포장한 사탕 나눠주기 운동, 문리대에 대한 자긍심고취'를 목표로 우리의 생활주변에서부터 운동을 전개해 신선한 느낌을 던져준다.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문리사랑운동을 통해 모든 문리인이 소속감을 갖고 말 그대로 문리대를 사랑할 수 있는 문리인이 문리대의자에 의자를 깨끗이 사용하자는 내용의 스티커부착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렇듯 '문리사랑운동'은 '주위환경개선' '생활문화개선' '문리대학생회기획부장 차승윤군과 함께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문리사랑운동을 전개하는 주체로서의 바램을 밝히는 차군은 또 "많은 학생들이 호응을 해줘 다행이기는 하지만 더 많은 문리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함을 가장 아쉬워했다.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행사로 진행될 문리사랑운동은 앞으로 '잃어버린 물건 보관대 설치' '세미나실 마련'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차군은 또 "문리사랑운동은 문리대학생회 사업이 아닙니다. 모든 문리인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문리대를 사랑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는데 문리사랑운동은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인다.

문리대를 사랑하자는 문리인들의 문리사랑운동, 작은 생활속에서의 메아리지만 그 울림은 그 어느것보다도 크게 느껴진다. 〈俊〉

'제2의 입시전쟁' 심각한 취업난

취업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上)

대학이 취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고등실업자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냉엄한 사회적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취업문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본교의 취업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순수취업률 해마다 저조해지는 실정
수급불균형'구직난 속에 구인난'
취업난 극복위한 대책 마련 미비

I. 전국 대학의 취업현황 및 특징

우리나라는 86년부터 88년까지 연평균 12%의 고도경제성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89년에 접어들면서 원화절상, 임금상승 등의 여파로 예년의 절반 수준인 6.6% 상승에 그쳤으며, 금년에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래이션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실업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월간 리크루트사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89년 2월 전국 4년제대학 졸업자들의 전체취업률은 59.9%, 순수취업률은 45.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88년과 비교해 볼때 전체취업률은 1.7%, 순수취업률은 0.3%가 각각 낮아진 수치이다.

이처럼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취업구조 또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심화시키고 있다.

1. 대졸실업자의 증가와 취업난 가중

89년도에는 전체졸업자의 59.9%인 96,872명이 취업, 유학, 진학, 군입대 등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나머지 40.1%에 달하는 64,740명이 교학력 실업자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들 미취업자들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13만 여명의 기존 미취업자들과 더불어 치열한 취업경쟁을 치러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

참고로 89년 최고의 입사경쟁률을 기록한 전기통신공사의 경우를 보면 80명 모집에 11,242명이 지원하여 1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35명을 모집하는 행정직부문의 경우 7,929명이 몰려 무려 226대 1이라는 놀라운 경쟁률을 기록함으로써 취업전쟁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한편 전체취업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오다가 88년을 고비로 일단 하락추세는 멈추고 89년에는 이보다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내 100대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해 경제전망 조사'에 따르면 100개 기업체중 41%가 올해는 자연감소 인원만을 보충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히려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 8%나 된다.

따라서 금년도의 취업경쟁은 그 어느때 보다도 치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 취업불균형

이공계 일부학과에 대한 기업의 채용편중현상, 대졸 여성인력의 취업난 가중, 서울소재 대학과 지방대학간의 취업률 편차 등은 여전히 대졸취업의 불균형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재산성이 약화된 기업들이 신규인력 채용규모를 감축해 나가는 한편,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컴퓨터, 정밀화학 등 첨단분야에 신규투자를 확대하여 이 분야의 전문인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인 '구직난 속에 구인난'이라는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력수급구조에 있어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의 정원비율이 5:5인데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비율은 3:7정도로서 대학정원의 계열별 분포가 산업화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문교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 순수취업률 저조

진학, 유학, 군입대를 제외한 순수취업은 계속 감소되어 오다가 89년을 고비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를 엄밀히 분석해보면 순수취업 내용중 분류상 다소 애매한 점이 있는 자영, 기타 부문을 제외한 실제 순수취업률은 이보다 훨씬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진학 및 유학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군입대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군입대자의 감소는 졸업후의 사회생활과의 직접적인 연결, '졸업과 동시 취직'이라는 장점을 고려하여 재학중 군복무를 마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4. 여학생 취업난 심화

남녀별 취업현황을 보면 남자의 전체취업률이 70.6%인데 반해 여자는 이보다 무려 30.4%나 떨어지는 40.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체 평균치인 59.9%에도 19.7%나 못 미치는 것으로 대졸여성인력의 심각한 취업난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취업률이 학교평가의 간접적 기준

대학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소재 대학이 지방소재 대학보다 취업률이 높고, 명문 인기대학이 비인기 대학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소재 대학들, 그 중에서도 소위 '일류'라는 일부 대학의 취업률이 훨씬 높게 나타남으로써 취업률이 대학의 인기도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II. 본교의 취업실태와 문제점

1. 취업실태

본교의 취업실태는 앞에서 기술한 전국4년제 대학의 취업통계자료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추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서울소재 주요대학들과의 비교·분석방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본교의 취업률은 서울소재 주요 12개 종합대학중 10위에 머무르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본교 취업의 실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체적으로 학교및 학과의 인기도와 취업률은 상관관계에 놓여있다. 또한 명문대학일수록 진학 및 유학의 비중이 크고 취업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자연계의 점유비율이 높은 대학, 그 중에서도 반도체, 컴퓨터, 정밀화학 등 첨단산업 관련학과가 많은 대학과 공과대학의 지명도가 높은 대학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광운대, 한양대)

셋째, 외국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학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어대)

넷째, 여학생의 점유비율 또한 취업률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교는 여학생 점유비율이 31.6%로 가장 높다.) 이는 대졸여성취업난이 그 대학의 전체취업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2.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교의 취업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물론 학생자신들도 취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비책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각 대학이 취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둘러 취업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는 데 비해 본교는 직원 1명이 취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예산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취업정보의 수집및 전달, 기업체 개발,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영역을 개척해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생들 자신이 취업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사전준비가 없이 막연하게 취업에 임하는 자세가 취업을 어렵게 하는 1차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취업전담기구의 강화, 취업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 고급인력의 수요확대, 대졸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대책 마련 등을 통해 취업난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 자신도 취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실력을 쌓아야 할 것이다.

이제 입사시험은 높은 경쟁률과 이에따른 치열한 눈치작전으로 '제2의 대학입시'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취업당사자는 물론 교직원, 동문, 학부모, 학교당국이 공동으로 취업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박 중 근
〈학생처 취업복지과〉

남자취업률이 70.6%인데 반해 여자 취업률이 이보다 30.4%나 떨어지는 40.2%를 기록하고 있다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R.O.T.C)

● 모집인원
● 지원자격
·90년도 4년제대학 2학년 재학생
'69. 1. 1~ '73. 3.1출생자(18세~22세 미만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90. 5. 1~6.10(학군도본부)
·구비서류

지원서접수시	신체검사시
·지원서 및 서약서……1부 ·대학입학및 1학년 성적증명서……1부 ·사진 (4X5cm)……1매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각1부 ·사 진 (4X5cm)……2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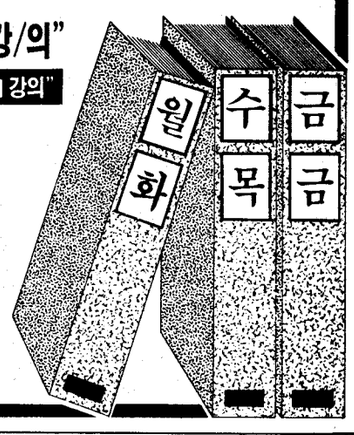
● 선 발: 대학성적,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 합격자발표: '90. 12. 22.
● 특 전:
·무시험선발
·소위임관, 중위전역 또는 복무연장, 장기복무
·의무 복무 기간: 2년 3개월(장교중 최단기)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석 보직활용
·전역시 직업보도실가
·대기업체 학군출신장교 우대선발 및 처우
● 문의처: 학군단 본부 (일반 962-9004)
(교대 0087)

제 108학생군사교육단

시사영어학원
종각뒤편·종로2가 734-2442
부설 유학국
週3日 투자!
1週日 효과!

시사영어학원에서는 "週3日강의"로 수강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져 합니다.
지루한 일주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週3日 강의"의 새로운 선택과 만나 보십시오.
새로운 교육과정은 반드시 새로운 효과를 얻게 해 드릴 것입니다.

"週/3/日/강/의"
"새벽반은 週5日 강의"
● 월 수 금
● 화 목 금



졸업앨범 사진촬영 일정

1. 교수님 개인 사진촬영
(1)기간 : 1990. 5. 14-1990. 5.17 11:00 - 17:00 중 좋은시기에
(2)장소 : 3호관 라켓볼룸장(1층 시청각실 뒷편)
2. 졸업예정학생 개인 사진 촬영
: 위 교수님 개인 사진촬영 일정과 동일
3. 졸업예정학생 단체사진 촬영 일정

1990. 5. 14. (월)	1990. 5. 15. (화)	1990. 5. 16. (수)	1990. 5. 17. (목)
10:00 일문	10:00 수학	11:00 원예	10:30 경영
10:30 서반아	10:30 화학	11:30 식품가공	11:20 회계
11:00 불문	11:00 환경	13:00 전자	12:00 무역
11:30 우주	12:00 중문	14:00 요업공예	13:00 행정
12:00 유전	12:30 섬유		14:00 원자력
12:30 물리	13:00 전산		14:30 기계
13:00 산공	13:30 화공		15:00 영문
13:30 토목	14:00 농학		
14:00 건축	14:30 임학		
14:30 체육A	15:00 조경		
15:00 체육B			
15:30 태권도			

X주의사항
1. 여학생의 경우 화장을 엷게 할 것.
2. 여학생의 경우 펄종류를 사용하면 촬영에 지장이되니 피할것.
3. 흰옷도 촬영에 지장을 초래하니 피할것 .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학생처장

컴퓨터 특강 인원 모집

총학생회 인권 복지 위원회에서는 경희 학우의 권익과 방학중 발생하는 경희 수원 캠퍼스의 사장화를 방지하고자 컴퓨터의 초보자를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오니 경희 학우의 뜻깊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 인원 : 500명(선착순 접수)
2. 강습 시간 : 6.23-8.18(방학 기간)
3. 프로 그램
1)MS-DOS
2)WORD PROCESS
3)DBASE III
4)KEY BOARD 조작법
4. 강의 시간표(강의 시간 90분)
1)10:00-11:30
2)11:40-13:10
3)13:20-14:50
4)15:00-16:30
5)16:40-18:10
5. 사용 기종 : 고려 시스템(XT-640KB, 2-FDD)
6. 편 성 표 : A반 : 월,수,금
B반 : 화,목,토
7. 수 강 료 : 30,000원(교재별도)
8.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5월 30일까지
9. 강의 장소 : 경희대 수원 캠퍼스
10. 문의 및 접수 : 인권 복지 위원회(T.2804)

** 참고사항 **
-본 특강은 신청자가 300명 이하일때는 설치비용 때문에 강좌를 개설할 수 없음.
-강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울 캠퍼스 예정)
-교통편 및 식당 운영가능.
-컴퓨터 전임 강사 배정.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총학생회 인권복지 위원회